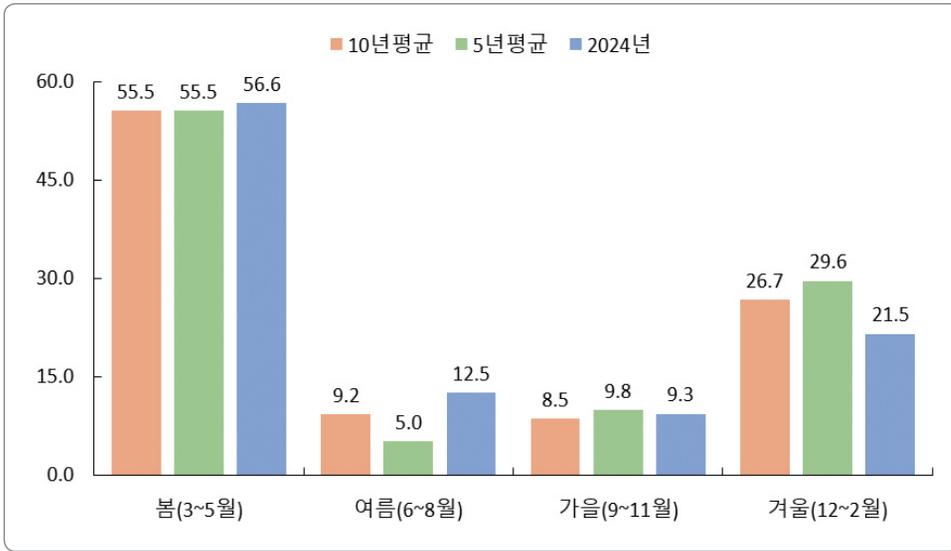


Q8 | 산불을 가장 조심해야 할 계절이 있나요?

A 봄철은 기온이 상승하면서 대기가 건조해지고, 지역에 따라 강풍이 부는 곳이 많아 산불의 위험이 가장 큰 계절입니다. 우리나라는 강수가 여름에 집중되기 때문에 겨울부터 봄까지는 차갑고 건조한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겨우내 쌓인 낙엽이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또한,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지 않으면 건조한 낙엽에 불이 옮겨붙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봄철에 전체 산불의 55.5%가 집중됩니다(최근 10년 평균).

강원과 경북 영동지방에서 부는 양간지풍(또는 양강지풍)도 봄철에 주로 발생합니다. 양간지풍은 남고북저의 기압배치에 의해 강한 서풍계열의 바람이 불 때 발생합니다. 이때 상층의 안정한 대기 역전층이 발생하면, 백두대간을 넘는 바람이 산맥과 안정한 대기층 사이의 좁은 통로로 빠져 나가면서 속도가 빨라지고, 산맥을 통과한 후 폭포수가 떨어지는 것 같이 상승기류로 인한 돌풍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동해안에 생기는 강풍을 말합니다. 이러한 강한 바람은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강원 산간등지에서 발생합니다. 산불이 20m/s가 넘는 태풍급 강풍을 타게 되면 순식간에 초대형산불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봄철 산불은 강우나 기상에 영향을 받지만, 산불 원인은 사람에 의한 실화가 가장 큽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영농활동을 시작하고, 산지와 인접한 외부에서 논이나 밭두렁,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산을 찾는 등산객의 수가 많아지면 산불의 발생 위험이 덩달아 커지게 됩니다. 산불은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의 대책이라는 안전 의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 최근 10년 평균 대비 현재 계절별 산불 현황 비교 >

※ 출처 : 산림청 산불통계